

고려 건국~16C 말 중부 방언을 기반으로 함.



- 1. 음운 ① 된소리 계열이 생겨남(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 대립 체계 성립) 쑴(꿈), 쑬(딸), 쑬(뿔)
 - ② **성(순경음 비읍)**, △(반치음) ○(옛이용), ▽(여린히읗) '사용 '성'은 15C 중반부터 반모음 ㅗ/ㅜ[w]로 바뀌거나 소멸함 고방>고와 고빙>고이

 15C 말부터 소멸 아숙>아우, 처럼>처음



1. 음운 ④ 모음 조화를 엄격히 지킴 등 양성 모음 : · , · , · · · 나는, 나를 '다가, 마군, 마골' '마가, 마군, 마골' '마가, 마근, 마골' '머거, 머근, 머글' '머거, 머근, 머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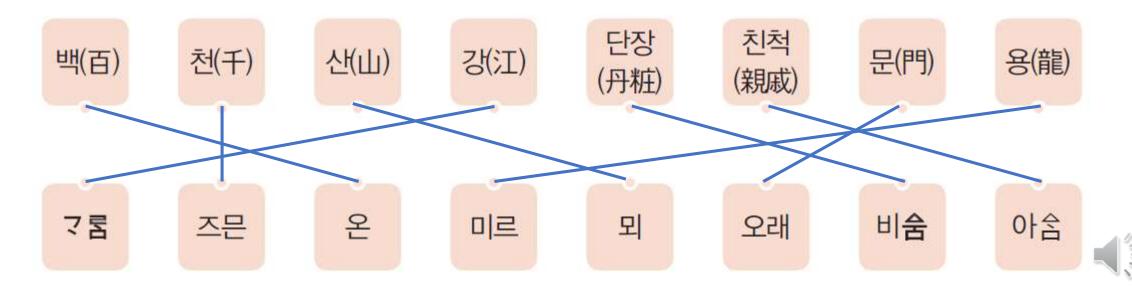
- ⑤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이용해 단어 뜻 구별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함 16C말에 소멸 평성과 거성 → 짧은 소리 상성 → 긴 소리
- ⑥ 어두자음군이 존재 발, 때

평성 : 낮은 소리(점 X)

거성 : 높은 소리(점 1개)

상성: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점 2개)

- 2. 어휘① 고유어의 비중은 작아지고 한자어의 비중은 높아짐그룹>강(江), 즈믄>천(千)
 - ② 몽골어, 여진어 등에서 어휘가 차용 가라말(털빛이 온통 검은 말), 보라매(사냥에 쓰이는 매), 수라(왕의 식사)
 - 1. 다음에 제시된 고유어와 한자어를 의미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 보자.



①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음

나모(나무), 나모와(나무와), 남기(나무가), 남긴(나무는)

② 주격 조사 '이'만 존재

형태	환경	A
ol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시미(심+이) : 샘이
I	'ㅣ'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톄(부텨+ I) : 부처가
Ø	' l '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불휘+Ø) : 뿌리가



③ 목적격 조사

형태	환경	
을/을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바불(밥+울), <u>ᄠ들(뜯+을</u>)
를/를/a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나룰(나+룰), 너를(너+를), 머릴(머리+ㄹ)

④ 관형격 조사

	형태	환경	예	
	이/의	평칭의 유정 명사 뒤	< 는다= < 숨+이(사슴의), 거부븨=거붑+의(기	H북의)
_	人	무정 명사 뒤 높임의 유정 명사 뒤	부텻(부처의), 나못(나무의)	

동물, 사람

⑤ 명사형 어미 '-옴/움 '앙-+ -옴 → 안좀, 열-+ -움 → 여름

⑥ 의문문

구분	환경	
설명 '-뇨', '-료' 등의 종결어미		므슴 마룰 니르노 <mark>뇨</mark>
의문문	체언 뒤에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에 의해 실현	엇던 사룸 <mark>고</mark>
 판정	'-녀', '-려'등의 종결 어미	늘구미 잇ᄂ <mark>녀</mark>
의문문	체언 뒤에 붙는 의문 보조사 '가/아'에 의해 실현	너희 죵가

⑦ 높임 표현 :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

- (으)시- : 자음 어미 앞 - 주체 높임법

- -샤- : 모음 어미 앞

- 객체 높임법 - 객체 높임법 - 굽 : ㄷ, ㅌ, ㅈ, ㅊ 뒤 - 숩 : 모음, ㄴ, ㅁ, ㄹ 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순경음 비읍이 나타나서 습, 줄, 술 의 형태가 됨.

- 상대 높임법 - 잇- : 의문형



형용사 어간 + Ø

⑧ 시간 표현

과거: 선어말 어미 발달X, 과거 회상 -더-

미래 : -(으)리-

⑨ 선어말 어미 '-오-': 1인칭 화자일 경우

내 ~ 아노라(안-+-<mark>오</mark>-+-라)

4. 표기법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한글이 반포되면서 비로소 우리말을 온전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자가 탄생하였다. 한글 창제 이후 한글 표기법의 원리로 채택된 것은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였다.

형태음소적 원리 (단어 형태 고정)

음소적 원리는 각 음소를 충실히 표기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곶[花]'이라는 단어의 형태를 항상 고정해 표기하지 않고 실제 소리 나는 대로 '곳, 고지, 곳도' 등으로 표기하는 원리이다.

이어적기 = 음절적 원리는 각 음절을 표기에 정확히 반영하는 표기 방법으로, 예를 들어 '사롭'에 주격 조사 '이'가 연결되는 경우 '사롭이'와 같이 적지 않고 '사루미'와 같이 적는 원리이다. 실제로 이 단어를 소리 내서 읽어 보면 둘째 음절은 [로], 셋째 음절은 [미]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름이'라는 표기보다는 '사루미'라는 표기가 음절 구조를 더 정확히 반영한 표기이다.



4. 표기법

- 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
- ② 8종성법
 - 4. 다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종성해에서 받침 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래 활동을 통해 중세 국어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つるヒレゖロスマ 八字可足用也

如以 买為 梨花 영의 公為 狐皮而 人字可以通用 故只用 人字

8종성법

'ㄱㅇㄷㄴㅂㅁㅅㄹ' 여덟 자로 족히 쓸 수 있다. '빗곶'은 '배꽃'이, '영의갖'은 '여우의 가죽'이 된다. 하지만 'ㅅ' 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ㅅ' 자로 만 쓴다.

(1) '빗곶'과 '엿의갗' 대신에 어떤 표기를 선택한다고 하였는지 생각하여 괄호를 채워 보자.

형태음소적 원리・빗곶→(뮟곳)

· 영의갖 → (<mark>영의갓</mark>) 음소적 원리



학습 활동

다음은 "석보상절」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해 보자.

주격조사 '이': 자음 뒤 부사격 조사

須達の中時四金切り

현대 국어에는 없는 순경음 비읍 존재

부처께 수달이 아뢰되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모음 뒤 -샤-목적격 조사: 자음 뒤 높임의 호격 조사 ㅎ종성 체언(나라ㅎ)

"如來하우리나라해 ③ 오샤 衆生의 邪曲을 덜에 호쇼셔."

오셔서 중생의 사곡을 덜게 여래시여 우리나라에 하십시오. (요사스럽고 교활함) 부사격 조사 '애'

모음조화

관형격 조사 - 평칭의 유정 명사 뒤 모음조화



학습 활동

2. 다음은 "석보상절」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해 보자.

주격조사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모음 뒤 -샤-



두음법칙 X

이어적기 구개음화 X

주격조사 'ㅣ': 'ㅣ'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出家 한사로 문 쇼히 콘디 아니 한니 그에 精舍 1) 업거니 어드리 가료."

출가한 사람은 속인과 같지 않으니, 거기에 정사가 없으니 어디로 가겠는가 (정신을 수양하는 곳, 절)

須達이 술보디 수달이 아뢰되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 웁 -- 나+ | (주격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순경음 비읍으로 바뀜

'내 어루 ⓒ'이 락슨 불리이다."

"내가 능히 (정사를) 짓겠습니다." 상대 높임 : 평서문



(1)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없었고 '이'만 쓰였다. 현대 국어라면 '가'가 쓰일 자리에 '가'가 쓰이지 않은 예를 찾아보자.

精舍 | (精舍가), 내(내가)

(2) ③과 ⓒ에 쓰인 중세 국어의 높임법에 관해 탐구하고, 아래의 표를 완성해 보자.

구분	선어말 어미	예	높임의 대상
상대 높임	-6]-	이란 수 보리이다	세존
주체 높임	ー人 ナー	오샤	여래
객체 높임	- 拿 -	이란 수 보리이다	정사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존을 높 <mark>일</mark>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 활동을 통해 중세 국어의 시제 표현에 대해 알아보자.

③ 이**의** 아들들히 아비 <u>죽다</u> 듣고 [현대어 역] 이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mark>죽었다</mark> 듣고

- 「월인석보」 권 17, 21장
- ① 하늘히며 사람 사는 **짜호** 다 뫼호아 세계(世界)라 호나니라 [현대어 역]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다 모아서 세계라 한다.
- 「월인석보」 권 1,8장

© 내 이제 분명(分明)히 너 두려 <u>날와리라</u> [현대어 역] 내가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겠다.

- '석보상절' 권 19, 4장



(1) 위 자료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현대 국어를 찾아서 시제를 확인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시제
죽다	죽었다	과거
ㅎ 누니라	한다	현재
닐오리라	말하겠다	미래

(2) 중세 국어에서 동사의 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를 확인하여 표로 정리해 보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Ø 또는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		-김-

